

책 읽는 나눔 아름답다

책 읽는 대학, 책 읽는 회원인



2013. 10. 1
—
2014. 1. 6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참여하세요!

하나, 고전을 읽고
'독후감 공모'에 참여하세요,
둘, 회원인과 감동을 공유하고 싶은
'좋은책'을 추천해 주세요.

독후감 공모

회원인은 고전을 즐겨 읽는다

너와 나의 고전읽기

회원인의 생각하는 힘, 독서력 강화를 위한 '독후감'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에 참가하셔서 독서의 즐거움과 감동을 공유하세요!

공모 내용

독후감 공모 대상 도서 : 58종
- 부산대학교 선정 고전 99선 중 「삼국유사」 외 57선
(참고도서 : 「고전의 힘」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엮음, 품결, 2013)
※ 대상 도서 전체리스트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추진일정

독후감 접수 : 2013. 11. 1 ~ 2014. 1. 6
심사 : 2014. 1. 6 ~ 1. 29
당선자 발표 : 2014. 2. 10 (월)
시상 : 2014. 2월 중 실시
※ 심사 일정에 따라 당선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용

상훈 : 부산대학교총장 상장 및 상금
최우수상 : 1명 (상금 30만원)
우수상 : 4명 (상금 10만원)
※ 상금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공모참여방법

응모자격 : 부산대학교 학부생 (재학생) | 제출방법 : e-mail 제출 (library@pusan.ac.kr) | 응모문의 : 도서관 기획전산팀 (T,510-1309, 1810)

제출양식	구분	독후감 공모 너와 나의 고전읽기	책 추천 공모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분량	A4용지 4매 이상~10매 이하 (표지 제외)	A4용지 1매 (표지 제외)
	편집양식	편집 프로그램 : 한글2007 이상 용지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5mm, 왼쪽/오른쪽 20mm, 머리말/꼬리말 10mm 글자모양 : 휴먼명조, 글씨크기 12포인트, 정렬 100%, 자간 0%, 줄간격 180%	

※ 도서관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응모작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독후감 공모 시 유의 사항

응모작은 미 발표되어야 하며, 당선 후 표절 혹은 본인의 작품이 아닌 경우 시상 취소 및 이후 응모 자격 박탈 / 1인당 1점 이상 출품 가능하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시상은 없음
응모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도서관에 귀속

※ 기 당선작에 대한 참고는 책읽는대학(<http://reading.pusan.ac.kr>) > 책이야기 > 서평&독후감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책추천 공모

PNU 감동 공유!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

좋은 책은 좋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감동있게 읽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공모 내용

추천 대상 도서 :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
추천 방법 : 추천하고 싶은 책 및 추천의 글 작성 후 공모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 가능

추진일정

독후감 접수 : 2013. 10. 14 ~ 2014. 1. 6
심사 : 2014. 1. 6 ~ 1. 17
당선자 발표 : 2014. 1. 20 (월)
상품권 지급 : 2014. 1. 21 ~

시상내용

우수추천서 시상 : 50건 선정
추천서 1건당 상품권 (1만원) 1매 지급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가능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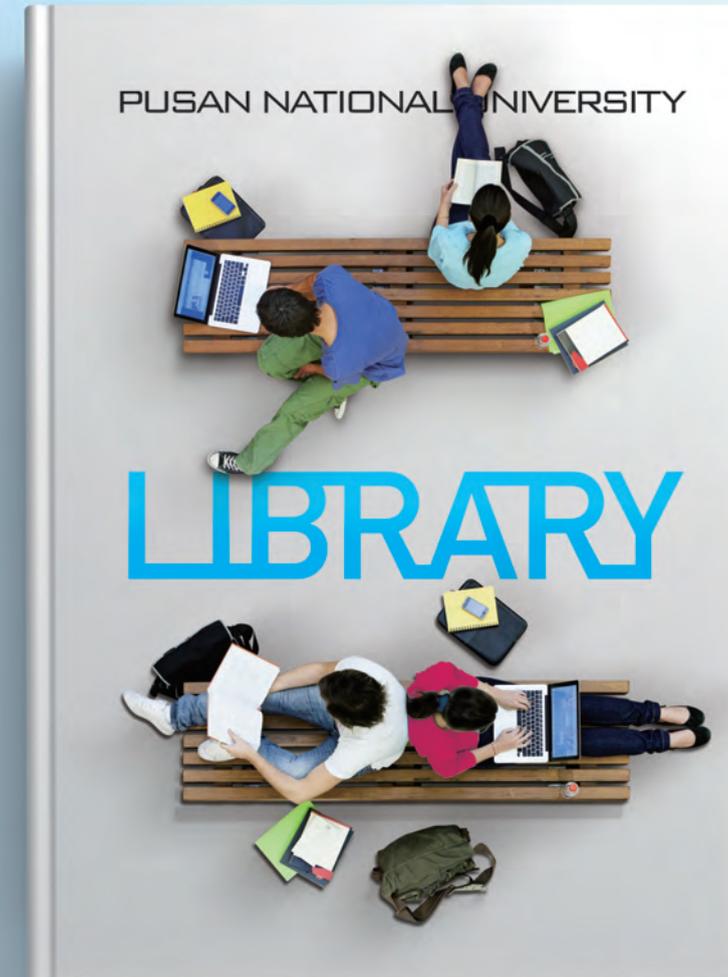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지식의 충전소,
영혼의 치유소,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CONTENTS

- 04 칼럼 독서노트와 영화노트에 대해
- 06 특집 모두가 잠든 사이 끝내는 책 한 권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거하는 사람들
차세대 학술정보 통합검색 솔루션 Discovery Solution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백년의 가락, 조선시대 결혼문화를 들여다보다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도서관 힐링낭독회 '책 읽어주는 효원인'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재환 발행일 2013. 12.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서관 블로그(<http://pnuilib.tistory.com>)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똑똑, 문을 열다

제2도서관 1층 로비 투시도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2014년 2월 제2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관련기사 14쪽)

독서노트와 영화노트에 대해

세상에 눈을 떠가면서 학생들의 사유가 더불어 성장하거나 일상을 관습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독서노트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포착되어있다. 독서노트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거대한 정신과 만나고 필자는 학생들의 삶과 어울어지는 생각과 대면하게 된다.



독서가 삶의 중심인 인물들

가을은 술집보다 도서관 출입이 더 잦아진 계절이다. 도서관은 책들이 진열되어있다. 책 한 권 한 권은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숙성하여 문자로 옮겨낸 정신의 흔적이다. 책들이 도서관이라는 우주를 만들어낸다. 독서를 많이 한 인물은 학자가 단연 앞서고 그 뒤에는 정치가들이 바짝 뒤쫓고 있다. 한국에서는 단연 다산 정약용이 돋보인다. 다산은 다작의 거유(巨儒)지만 다독의 귀재이기도 했다. 다산의 독서량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을 잠시 인용해 보겠다.

정승 이강산이 어느 날 영평에서 대궐로 오다가 길에서 한 소년이 한집의 책을 팔에 싣고 북한산 절로 가고 있는 것을 만났다. 십여일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한집의 책을 싣고 나오는 먼젓번 그 소년을 만났다. 강산이 이상히 여겨 물었다. “너는 웬 사람인데 책을 읽지 않고 다만 가거나 오거나 하고 있던 말이냐?” 소년이 대답하기를, “다 읽었습니다”하였다. 강산이 놀라서 묻기를, “싣고 가는 책이 무슨 책이냐?” “《강목》입니다.” “《강목》을 어떻게 십여일 동안 다 읽을 수 있던 말이냐?”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읽 수도 있습니다.” (강명관, [조선의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 역사, 2013, 299쪽.)

십일 동안 한집의 책을 다 읽고 외울 정도로 소소한 소년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소년 시절에 이 정도 독서에 정진했으니 18년 동안 강진 유배지에서 읽고 저술한 행적을 헤아려 보면 작은 도서관에 가득 찰 장서 정도는 독과하지 않았을까 싶다. 남자는 다섯 수레의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다산은 목표량을 수십 배 달성한 셈이다. 다산의 여유당전서 완성은 다독 체험이 분명 일조하였을 것이다.

퇴계 이황은 독서량에서는 다산에 다소 못 미칠지 모르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은 앞서면 앞섰지 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황이 남긴 서간에는 심하게 책 읽는 것에 대한 경계의 글이 있다. 이황은 “책을 읽되 마음을 괴롭힐 정도로 심하게 읽지는 마세요.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공부의 맛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고 독서법을 제시한다. 독서는 공부의 맛을 즐기는 정도에서 수행해야지 마음을 해칠 정도로 과한 독서에 주의를 주었다.

실학자 중에서 독서가로 정평이 나있는 이는 이서구이다. 이서구는 손에서 책을 때놓은 적이 없을 정도라는 소문이 났으며 좁은 방에서도 해가 동쪽에 들면 동쪽 창가에 가서 책을 읽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서쪽 창가에 가서 읽을 정도로 책에 심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정치가들에게 시선을 돌리면 독서가로 알려진 이들이 즐비하다. 아마 정치가는 역사 현장의 풍광과 격변을 헤치고 가려면 단단한 자기 철학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 주변 책사들의 도움도 받았지만 인류의 보고인 책에서 직접적인 정치철학을 수혈 받았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마오쩌둥은 대표적인 독서광이다. 그는 청년시절에 호남 성립 도서관에서 규칙적으로 독서계획을 짜서 매일 책을 읽었다. 아침 개관시간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떡 두 쪽으로 점심을 때우고 그 시간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독서에 돌입하여 폐관시간까지 독서를 하였다. 마오쩌둥은 도서관의 개관시간에서 폐관시간까지 책읽기에 몰입하여 역사와 지리 등을 공부하여 혁명의 철학을 공고하게 다졌던 것이다. 그는 좋은 책은

세 번 반복해서 읽고 네 번 숙성시켜서 읽는 반복 독서를 했다고 한다. 아울러 독서한 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별도의 노트에 옮겨 적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읽고 성찰했다고 한다. 독서는 학자에게는 명저를 저술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정치가에게는 정치적 철학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버팀목이 되었다.

독서노트와 영화노트

책과 책이 거주하는 도서관은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발명품 중의 하나인 것 같다. 필자는 학기가 시작되면 첫날 항상 내주는 변함없는 숙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영화학 입문시간이거나 한국영화론 시간이거나 불문하고 수강생들이 모두 독서노트를 한 학기동안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이다. 책 선정 기준은 전공 관련서이거나 문학 혹은 역사서나 두꺼운 철학서까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열어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분량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이다. 그때마다 필자는 “합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정도 두껍게 해도 되고 A4 용지 한 장만 채워도 무리 없다”고 말하면서 웃는다. 독서노트는 수업과 별개로 책 한 권과 만나서 한 학기에 깊은 대화 나누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부여한 과제이다. 학기말에 과제를 받아보면 A4 용지 한두 장에 적당히 서문과 첫 장의 내용을 조금 언급하면서 제출한 학생도 일부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예쁜 노트에 깨알 같은 글씨로 본문을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덧붙여서 제출한다. 독서노트를 점검하는 일은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강의실 밖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헤아려보는 작업이다. 그들의 삶의 자국이 독서 노트에 은밀하게 옮겨져 있다. 세상에 눈을 떠가면서 학생들의 사유가 더불어 성장하거나 일상을 관습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독서노트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포착되어 있다. 독서노트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거대한 정신과 만나고 필자는 학생들의 삶과 어울어지는 생각과 대면하게 된다. 이 체험은 아주 경이롭다.

독서노트 과제는 필자의 독서 버릇에서 비롯했다. 문학평론하는 이명원이라는 후배가 있었다. 지금은 저명한 저술가가 되어 언론에 이름이 가끔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하루에 100쪽씩 매일 독서를 하고 책의 중요한 대목은 항상 노트에 빼곡하게 메모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색 볼펜으로 적어 넣었다. 심지어 군생활 중에도 휴가를 나오면 도서관에 와서 100쪽을 읽었다고 필자에게 밝힌 적도 있었다. 필자도 사소한 노트를 마련하여 책을 읽고 나면 간단한 메모정도를 하고 지내다가 이명원군의 정리 방법에 영향을 받아 20대 중반부터 책을 읽고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20대와 30대에는 비교적 두꺼운 대학노트에 책의 내용을 옮겨 적다가 최근에는 가방의 무게를 덜기 위해 얇고 작은 노트에 옮겨 적고 있다. 책을 노트에 옮기는 것은 재정리의 의미도 있지만 반복해서 읽으면서 숙성시키는 효소의 역할도 한다. 가끔씩은 책장에 꽂혀있는 노트를 바라보면 겉표지에 기록된 책을 읽었던 시간들이 되살아나는 맛도 적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에게 독서노트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필자의 독서법에서 기인한 셈이다.



물론 마오쩌둥 식의 반복 독서와 정리 노트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원의 독서노트에서 영향 받은 필자의 독서 노트 습관이 학생들에게 동일한 독서 맛을 주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책은 노트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영화는 노트로 옮기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다. 영화는 이미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감상하고 나면 몇 장면과 대사의 기억만 남기고 기억에서 휘발된다. 필자는 군대에서 구독 가능한 스포츠 조선이란 신문을 통해 영화에 입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한섭 평론가가 쓴 영화 관련 글들을 스크랩하면서 전역 후 감상할 목록을 작성하였다. 전역하자마자 서초동에 있는 영상자료원 자료실에 개관시간인 9시에 출근하여 폐관시간인 6시까지 꼬박 영화를 감상했다.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감상했지만 세계 영화사를 써내려간 영화를 한번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랐다. 그 때 생각해진 아이디어가 영화 노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미 프랑스와 튀르포도 영화노트를 만들어 영화목록을 적고 걸작과 졸작의 자기 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있다. 필자의 영화노트는 영화적 장면과 대사 그리고 미학적 장치들에 대한 간단한 메모에서 배우의 연기와 감독의 연출력에 대한 20자평까지가 가미되었다. 영화노트가 축적되어 가면서 저절로 영화에 대한 글쓰기의 강으로 내몰리게 된 셈이다. 책은 독서노트에, 영화는 영화 노트에 기록하면서 텍스트와 인간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삶의 윤기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 중의 하나일 것 같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만나는 무박2일 독서캠프 모두가 잠든 사이에 끝내는 책 한 권

시간이 지날수록 독서율이 낮아지고, 사색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특별히 딱 하루! 이 하룻밤 동안 책 한 권을 읽어가며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모두가 잠 든 사이에 끝내는 책 한 권' 무박 2일 독서캠프가 11월 8일(금) 19시부터 11월 9일(토) 6시까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독서캠프는 KAIST 조애리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명작 『제인 에어』 독파하기, 영화관람, 독후감쓰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펼쳐진 독서캠프!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13. 11. 8.

19:00 오리엔테이션

도서관에서 즐기는 이색 독서체험 그 시작부터 기대된다



19:10 조애리 교수 강연

사랑과 사회적 지위 앞에 당당한, 새로운 여성상의 탄생을 그린 성장소설! 제인 에어를 만나본다



20:50 야식 및 휴식시간

'도서관'에서 먹는 야식은 더 맛있다



21:00 독파시간

책 읽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23:00 요가로 잠 깨우기

처음 만나 느꼈던 어색함... 요가를 통해 긴장이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가 된다



13. 11. 9.

01:00 행운권 추첨 이벤트

도서관에서 뜻밖의 행운을 만나다



01:30 영화관람 & 사서와의 대화

괜찮아. 밤공기 차가워도, 마음 따스해지니



04:00 독후감 작성 및 발표

책을 통해 만난 우리, 책읽기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다



이젠 부모님의 안락한 꿈을 떠나 내 인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려 한다. 비록 소설이지만 제인의 삶에서 본 성숙과 만남을 통한 성장을 내 삶에서도 실현하려고 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18살의 제인처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과 내 인생에 대한 끝없는 사색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는 것들과 배우는 것들을 생각하고 인생을 더 '괜찮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제인 에어는 성장소설이다. 제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성장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될지 배우게 되었다. 제인 에어에서 보이는 성장통과 성숙은 내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 듯하다. - 독후감 수상작 중 일부 - 이규빈(원예생명과학과)

05:00 시상식 및 마무리

만남은 헤어짐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하듯이 헤어짐 또한 만남의 또 다른 이름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독서캠프에서 만나 책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리는 사이 친구가 되고, 우리가 되어,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나갔다. 책 읽기를 통한 그 행복, 그 즐거움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도서관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를 통해 독서캠프 현장을 생생히 담은 영상과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도서관과 함께하는 독서캠프 그 두 번째! 12월 19일부터 20일 까지(1박 2일) 경남 하동군으로 토지문학기행을 떠납니다! 올 겨울 문학으로 치유하는 독서여행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인문사회과학자료관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며 다양한 생각을 교류합니다

도서관이 책만 보는 정적인 공간을 벗어나 만남과 경험이 어우러진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서관을 '죽은 지식의 보관 창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의 유통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서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여섯 번째 만남. 인문사회팀과 함께한다.

01 인문사회팀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일간지 등의 자료를 소장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학내 연구자들의 연구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조사·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도서관 신관 3층 '북카페(Book Cafe)'에는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과 독서치료 자료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컴퓨터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목록이 완료된 자료는 신속하게 서가에 배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자료 및 시설 이용, 도서관 활용법에 대한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학술정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12년부터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http://libguides.pusan.ac.kr>)를 통해 인문·사회과학분야 관련 24개 학과에 대한 학술자료 이용안내, 최신동향, 수업교재정보 등 학과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관 정보활용교육과 학술DB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과 학술정보 검색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주 1회 실시합니다. 맞춤형교육은 학과 및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주제에 맞는 정보활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매 학기 초에는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학술DB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의 특화된 서비스로, 매학기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와 자기성장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의 자기정체성 재확립과 자기존중감 향상을 목표로, 학생들의 즐거운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보존시설을 갖춘 고전자료실을 운영하며 훼손·멸실 위기의 고문헌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전자료실은 특히, 영남지방의 각 문중 및 개인이 기증한 고문헌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어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3 사서로서 가장 보람되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이용자에게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연구나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때,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의 성장과 변화가 느껴질 때, 공부를 하거나 책을 대출하는 장소로만이 아니라 대학의 심장으로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인식하거나 감사를 표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상상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난처할 때도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가능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4 마지막 한 마디!

앞으로 열람테이블 및 PC 교체, 조명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한 열람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들의 도서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자료, 비품 등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학술정보 통합검색 솔루션 Discovery Solution

논문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이제 더 이상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에서
논문을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검색으로 소장자료에서 e-book, 전자저널, 논문, 학술DB 기사를
동시에 검색하는 차세대 학술정보 통합검색 솔루션 **Discovery Solution**을
2014년 1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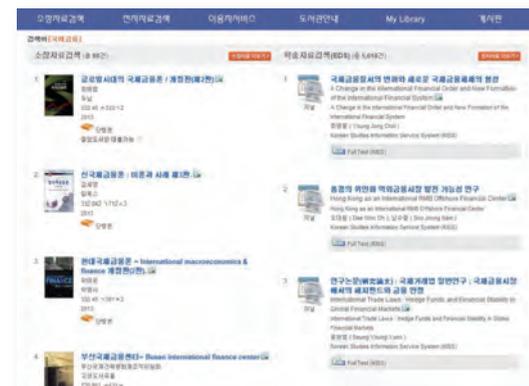
Discovery Solution은

- 우리 대학에서 구독하는 2만 여종의 전자저널과 14만종의 e-book, 1억 건의 논문(Article)을 단일 검색창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쉽고 빠른 검색과 원문링크까지 One-Stop 통합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학술자료를 검색하는 연구자들의 검색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인 원문 이용을 통해 연구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의 이용률 향상 및 구입 비용 대비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Discovery Solution 검색 방법



▲기본은 통합검색이며, 소장자료와 전자자료를 구분하여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검색 결과, 왼쪽은 소장도서, 오른쪽은 전자저널, 논문(Article), e-book 등이 나타납니다. 소장자료검색을 선택하면, 전체화면에 소장 자료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논문의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원문 링크를 선택하여 원문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고전자료 전시회

백년의 가약

조선시대 결혼문화를 들여다보다

조선시대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였을까? 부산대학교도서관 소장 고문서 전시 '백년의 가약, 조선시대 결혼문화를 들여다보다'가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1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우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중 결혼과 관련된 자료 20종을 선정, 전시하여 조선시대와 현재의 결혼문화를 비교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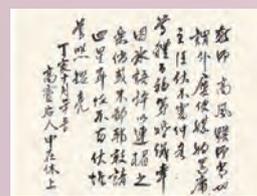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결혼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절차를 혼례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식 혼례의 발상지인 중국의 육례(六禮) 절차에 따라 결혼이 행해졌다. 그러나 이 육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당시의 생활에도 맞지 않아 사대부가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현종(憲宗) 10년(1844) 육례를 축약해 만든 사례편람(四禮便覽)이 편찬되면서 간소화된 혼례절차가 예법화되었다.

의혼 議婚

신랑 측과 신부 측이 혼사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양측은 서로 사람을 보내어 상대방의 인품과 학식, 형제관계 등을 알아본 뒤 신랑 신부의 궁합을 보아 합의가 이루어지면 허혼(許婚)을 한다.

허혼 許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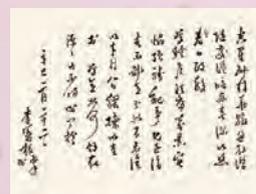


삼가 고품을 우러르며 늘 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다가 뜻밖에 여러 차례 중매쟁이가 도로 주...를 썼습니다. 삼가 중매에 존체가 온갖 복을 받으시는지요? 우선 혼사문제는 다행스럽게도 중매쟁이의 말을 통해 집안이 서로 맺어지는 즐거움을 허락하시니, 혹 비천하게 여기시지는 않으실는지요? 감히 사성을 청합니다. 나머지는 갖추지 못합니다. 밝게 살피주시기를 바랍니다.

납채 納采

혼인 약속이 맺어지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랑이 태어난 년, 월, 일, 시의 사주(四柱)를 쓴 사성(四星)을 보내는데 이것은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 측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 측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하는 납채문(納采文)을 써서 붉은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 측에서는 신랑의 사주를 받으면 신랑과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보고 날짜를 택하여 신랑 측에 통지하는데 이것을 연길(涓吉)이라 한다. 그러나 신랑측에서 이 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서로 의논해서 조율하는데 이것을 연길개정(涓吉改定)이라고 하고 최종 결정이 나면 연길답(涓吉答)을 한다.

연길개정 涓吉改定



귀댁의 사자가 찾아왔고, 보내주신 편지도 함께 받았습니다. 남몰래 따라온 경사가 넘쳐나서 봄날과 더불어 깊어집니다. 삼가 봄날이 한창인 이때 존체가 계절에 따라 만중하시다니, 실로 저의 간절한 기도에 꼭 들어 맞습니다. 혼사는 이미 연길을 받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미흡한 것이 있는듯 하여 내달 8일로 다시 날을 잡아 드립니다. 어찌 생각하실는지요? 나머지는 한없이 그리워집니다. 삼가 갖추지 못한 채 답장을 드립니다.

납폐 納幣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부용 혼수와 그 품목을 적은 물목(物目) 그리고 혼서지(婚書紙) 등을 담은 혼수함을 보내는 절차이다. 혼서지는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는데 따님을 주신 감사의 마음과 앞으로 따님을 귀하게 잘 대하겠다는 인사글이다. 이것을 보낼 때는 함속에 넣지 않고 따로 품안에 품고 가서 전달했다고 한다. 신부 아버지는 혼서지를 받아 사랑에 고(告)하고 신부는 일부종사(一夫從事)의 뜻으로 죽을 때까지 장롱 안에 간직했다가 죽을 때 관속에 넣어가지고 갔다.

신랑측에서는 결혼을 위하여 신랑의 옷의 치수를 기록한 의양(衣樣)을 보내어 신부 집에서 준비하도록 하며, 신부측에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선금(先金)을 미리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만 행해졌던 이런 풍속들이 일반백성들도 따라하게 되면서 허례허식과 낭비가 심해져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결혼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혼서지(婚書紙)



삼가 편지를 받아 보니, 영애를 제 장손 만규의 아내로 주시기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선인의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사자를 보내 납폐의 예를 행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편지를 드립니다.

친영 親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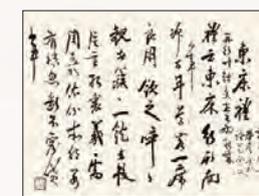
유교식 혼례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렀는데 이를 친영(親迎)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의례와 절충되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루고 시댁으로 함께 돌아오는 반친영(半親迎)이 행해졌다. 친영의 절차는 기러기를 초례상(醮禮床)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전안례(奠雁禮),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는 교배례(交拜禮), 신랑과 신부가 합근주(合巹酒)를 마시며 부부가 되었음을 알리는 합근례(合巹禮) 순으로 진행된다.

식이 끝나면 신부집에서 친척이나 친구들이 신랑의 다리를 묶어 거꾸로 매달고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신부가 귀한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난으로, 장모에게 술과 음식을 받아내는 동상례(東床禮)를 하였다.

혼례가 끝나고 신부집에서 혼례식에 사용했던 갖가지 음식을 신랑집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상수(床需)라고 하고 상수를 보낼 때는 음식의 품목을 적은 물목(物目)을 함께 보냈으며, 신랑집에서는 상수에 대한 답을 하는 상수답서(床需答書)를 보냈다. 혼례를 모두 마친 신부는 1년 간 친정집에 머무르며 각종 예절을 배웠다. 혼례 후 이틀을 지내고 신부 집에서 신랑이 돌아가는 것을 송신랑(送新郎)이라 하고 돌아간 사위가 다시 와주길 청하는 것을 청재행(請再行)이라고 하며, 사돈끼리 자식들의 안부를 대신 적어 보냈던 것을 신흠후서(新婚候書)라고 한다. 또 1년 간 머물면서 추석, 설 명절 때 신랑 집으로 술이나 편지를 보내는 절수세찬(節羞歲饌)을 하였으며, 날씨와 안부를 묻는 편지인 한훤찰(寒暄札), 신부가 시집을 왔다가 아버이를 뵈러 친정에 가는 것을 근행(覲行)이라고 하고, 신랑 아버지나 신랑 형제를 청하는 것을 청빈(請賓)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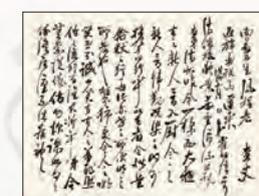


동상례 東床禮



예에서 말하는 동상은 영남에서 행한다. 백년손님과 한 자리에 앉은 좋은 벗들이 술을 마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인다. 한 차례 먹을 음식의 수는 한 마디 말로 서로 합의하였다. 좋은 술과 음식을 두루 갖추는 것은 전례에 의거해서 기다리겠다. 만약 소홀히 한다면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재행 때 ○냥을 가져온다.

신흠후서(新婚候書)



전날 수백 리 길을 노사장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부모님을 모시는 여가에 형제분의 체후가 만중하시기를 우려러 축원합니다. 사제의 형편은 어제와 오늘이 한 가지입니다. 대저 옛날의 신부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는데, 지금의 신부는 3일 만에 친정에 갑니다. 더구나 그들 내외가 손잡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추어 지금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금수가 하는 짓과 비슷합니다만, 이것 또한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시대가 변화시킨 것입니다. 거부하면 지금 사람들의 조롱을 당할 것이고, 거부하지 않으면 고인이 수척스럽게 여기는 것이라 진실로 가소롭습니다. 그러나 시속에서 유행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시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혹 깊이 책망하지 말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적기로 하겠습니다. 삼가 갖추지 못하고 편지를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혼인을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남녀 당사자들만이 아닌 가족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혈연 공동체를 위주로 한 결혼의식이 발달한 것이다. 시대가 변한만큼 결혼 문화도 새롭게 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 정서에 맞게 모두가 하나 되어 축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결혼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결혼이 지닌 본래의 참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2013 도서관 힐링낭독회 '책 읽어주는 회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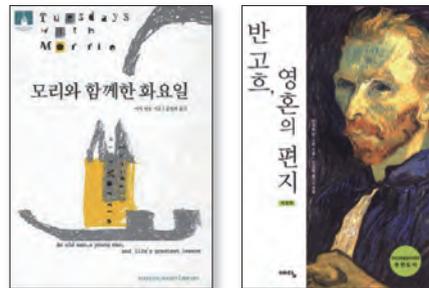
내 목소리가 들리니?



2013 도서관 힐링낭독회 '책 읽어주는 회원인'이 11월 14일 (목) 오후 5시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열렸다. 2011년에 시작하여 올해 4회째를 맞이한 낭독회 '책 읽어주는 회원인'은 낭독회 공모에 선정된 회원인이 관객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한 책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이아영(경제학과), 이해경(무역학과) 씨가 '청춘, 충분히 두려워도 돼'라는 주제로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과 빈센트 반 고흐의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낭독하였다. 2부에서는 김태영(환경공학과) 씨가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음악공연'을 주제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낭독 영상과 더불어 음악공연을 선보였다. 이번 낭독회는 참가자들간에 따뜻한 감성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낭독회 영상은 도서관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를 통해 볼 수 있다.

청춘, 충분히 두려워도 돼

20대, 대학생인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외로움으로 힘들어 한다. 그 두려움, 외로움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낭독회를 통해 병에 걸린, 우울증에 걸린 모리 선생님과 반 고흐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그 슬픔을 극복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어, 방향하는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이번 낭독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했으면 한다.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인데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 아쉽다.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항상 느끼지만 그만큼 사랑받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함께하는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 미치 앨봄 | 세종서적
반 고흐, 영혼의 편지 | 빈센트 반 고흐 | 예담



책 읽어주는 회원인
이아영(경제학과), 이해경(무역학과)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음악공연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무엇이고,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는지, 나의 순수한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는지 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독서낭독회에 앞서 책, 음악 그리고 미술을 한데 접목시켜 몇몇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책의 재미를 보다 쉽게 일깨어 줄 수 있을까? '혼자 하는 독서' 문화를 '함께 공감하는 독서'로 정착하는 방법은? 등이 나의 주된 관심사였고 도전 과제였다. 그런 고민과 시도와 맞물려 독서낭독회 공지를 보게 되었다.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음악과 영상을 통해 청중들에게 새로운 독서 문화를 선사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낭독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앞서 낭독회의 취지는 많은 이들과 함께 책의 재미와 본질을 알아가자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함께하는 책
어린왕자 | 생텍쥐페리 | 문학동네



책 읽어주는 회원인
김태영(환경공학과)

낭독 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야기 하나

독서 낭독회. 사실, 도전이었다. 나에게 도전.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독서 모임 '비채'를 통해 책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내 자신이 얼마나 바뀔 수 있었는가를 직접 느끼게 됐다. 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되면서, 나처럼 책의 소중함을 몰랐던 대학생들이 새로운 제2, 제3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했다. 그래서 도전한 이번 낭독회는 다소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새로운 것을 해보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잘 되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라는 나의 작은 꿈을 처음으로 조그맣게 실천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무한한 꿈과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20대, 청년이다.

이아영(경제학과)

이야기 둘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과 그 속에서 얻었던 생각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들었다. 낭독자를 알지 못하지만 많이 찾아와 준 학우들을 보면서 긴장도 되고 설렘도. 약간 협소할 수도 있는 공간이었지만 다들 오밀조밀 모여앉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더욱 몰입도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낭독회에서는 낭독자와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질문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해경(무역학과)

이야기 셋

'함께 책을 읽으면 훨씬 즐겁다'라는 테마로 진행한 낭독회. 책과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관객들의 호응으로 즐겁게 진행할 수 있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낭독자로 선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에 아쉽기도 했다. 나는 'Creplay'란 이름으로 '독서를 통한 스토리텔링 음악공연' 프로젝트를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김태영(환경공학과)

2013 도서관 힐링낭독회 두 번째 '책 읽어주는 교수님'

12월 18일 오후 4시 제1도서관 3층 북카페에서 열린다. 부산대 김용규(영어영문) 교수가 '한 현실적 초월주의자의 고독한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낭독할 예정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회원인 여러분을 초대한다.

제2도서관 개관 내년 2월로 연기



내년 1월 초 예정이었던 제2도서관 개관이 2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1980년대 지어진 제2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받아 지난 7월부터 구조 보강, 열효율 개선 및 열람환경 개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초 국고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람환경 개선 공사비 부족으로 4층 노트북열람실을 비롯, 일부 열람실 공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서관에서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의자' 기부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어려운 학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공사가 12월 말에 재개됨에 따라, 제2도서관은 2월 중순 개관할 예정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제2도서관은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iCOMMONS를 비롯, 영화상영이 가능한 오디오룸, 취업지원자료 센터, 고전교양자료코너 등 다양한 정보서비스 공간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한, 노트북열람실, 대학원열람실, 그룹스터디룸 등 쾌적한 열람환경에서 자료 이용과 학습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20

'행복한 책 읽기' 독서모임 운영



도서관에서는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격주로 제1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행복한 책 읽기'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독서모임은 대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자기성장과 독서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20 여명의 학생들이 두 개 팀으로 나뉘어 '부산대학교 선정 고전 99선' 중 3권을 선정, 책을 읽고 팀별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간에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 자기 이해는 물론 정서적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제1도서관 문학예술팀 051-510-1814 과학기술팀 051-510-1831

부산대 FRIC-UNIST 상호교류 협약 체결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원센터(FRIC, 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학술정보관이 기술과학 분야 학술정보 상호교류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콘텐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10월 7일 UNIST 학술정보관에서 부산대학교 이제환 외국학술지원센터장(사진 왼쪽)과 UNIST 임진혁 학술정보처장(사진 오른쪽)이 맺은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홈페이지에 상대방 배너를 연결해 상호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과학 콘텐츠를 교류하며, 외국학술정보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원센터 051-510-3102

Special Focus

PNU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도서관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작을 발표한 저자를 초청하여, 저자와 독자가 함께 만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11월 7일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다면』(리더스북, 2013)의 저자 조우성 변호사가 제1도서관 3층 북카페를 찾았다.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변호사는 '내게서 분리될 수 없는 나력(裸力), 나의 에토스(ethos)를 키워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사진 왼쪽). 이에 앞서 9월 30일에는 10.16기념관에서 『살인자의 기억법』(문학동네, 2013) 출간 기념, 김영하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펼쳤다(사진 오른쪽). 부산대학교도서관, 문학동네, 인터파크가 공동주관한 이날 행사는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수 이적 씨가 진행을 맡았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 작가의 가치관 등을 진솔하게 들려주며, 독자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삼강행실도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71호로 지정되었다. 세종의 지시에 의해 간행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과 함께 전 백성을 대상으로 한 조선시대 윤리도덕 교과서로, 이 중 가장 먼저 편찬·간행됐으며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또한, 사례마다 삽화가 수록돼 있어 조선조 삽화본의 대표적 예로도 유명하다. 부산대 도서관 소장 『삼강행실도』는 2책으로 편철된 목판본이다. 지금까지 보존돼 전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1책으로 장정돼 있는 데 반해 이 책은 2책으로 분장돼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책 1에는 서문과 총신도가 수록돼 있고, 책 2에는 효자도와 열녀도가 수록돼 있다. 언어 사실이나 표기법으로 보아 1581년(선조 14년)의 중간본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 책은 17~18세기 초 사이에 판각해 후쇄한 것으로 추정되며 판각년도는 불명확하다.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의 윤리 및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며, 국어사·회화사 연구에도 내용상 매우 중요한 책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고전자료실 051-510-1824

LIBRARY

제2도서관 열람실

'1인 1의자'

기부 운동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감동

'1인 1의자' 기부 운동,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7월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제2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여의치 않은 학교재정에도 불구하고 열람실만금은 좋은 환경과 비품으로 구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2013년 11월 6일 학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제2도서관 열람실 '1인 1의자' 기부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기부,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낸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기부운동이 교내 곳곳에 확산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15일 현재 총 165명이 참여하여 60,400,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제자 사랑'과 직원들의 '뜻 깊은 후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신 것은 단순한 의자 하나가 아니라 아름다운 꿈을 키우고 실천할 수 있는 '효원인의 미래'입니다.